

SNK, 中 텐센트와 손잡고 '화평정영' 콜라보 선보여!

- SNK의 '더 킹 오브 파이터즈 97' 대표 캐릭터 '쿠사나기 쿄' 등 3명 참전
- '화평정영', 시즌 내 SNK 추억의 오락실과 아케이드 게임 담아 향수 자극



SNK인터랙티브(대표 전세환)가 중국 텐센트와 손잡고 모바일 게임 '화평정영(영문: Game For Peace)' 과 콜라보를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. 이번 협약으로 SNK의 대표 IP(지적재산권)인 '더 킹 오브 파이터즈 97'의 대표 캐릭터들은 텐센트가 선보이는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다 .

현지시각으로 어제(3일) 업데이트한 '화평정영'은 “다시금 불타오르는 전투의지, '더 킹 오브 파이터즈' 쟁패!” 라는 주제로 SNK의 '더 킹 오브 파이터즈 97'의 유명 캐릭터인 '야가미 이오리', '쿠사나기 쿄' 그리고 '셀미' 의 코스튬을 추가해 SS6 시즌에 돌입했다.

SS6시즌 기간 중 게임 이용자들은 여러 미션을 완수해 포인트를 획득, 그 후 포인트 교환 및 캐릭터 연락을 통해 SNK 캐릭터 3명의 코스튬을 받을 수 있게 했다.

또한 게임 그래픽 상 옛날 오락실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SNK 아케이드 게임기, 오리지널 게임 사운드 등 이용자들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낯익은 요소들을 추가해 그들의 옛 향수를 자극시키는 데도 집중했다.



SNK 인터랙티브 홍보팀 관계자는 “중국 시장에서도 당사의 IP를 활용한 제휴 및 영업 문의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”며 “텐센트의 ‘화평정영’은 서비스 첫날 ‘왕자영요’를 잡고 중국 내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텐센트의 주매출원이 되었던 게임인 만큼 이번 콜라보도 좋은 효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<끝>

<자료 문의>

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(010-5477-0979 / skchun@snkcorp.co.kr)

<SNK 인터랙티브 소개>

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‘더 킹 오브 파이터즈’ ‘아랑전설’ ‘메탈슬러그’ ‘사무라이 스피리츠(사무라이 쇼다운)’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(IP)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,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.